



단결과 연대로 책임지는 경주지부!

경주지부 14기 20호

발행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지부장 정진홍 전화 : 054-748-3223 팩스 : 773-9270 인터넷 : <http://gj.kmwu.kr> 발행일 : 2026.05.29(금)

경북 첫 진보교육, 투표로 만듭시다

진보교육이 만든 변화, 이제 경북에서도 시작합시다



6·3 지방선거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학교에서 배우고 자랄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다. 교육감이 누구냐에 따라 학교의 방향이 달라지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과 아이들의 학교생활도 달라진다. 학교가 아이들을 성적으로 줄 세울 것인지, 함께 배우고 성장하게 할 것인지도 교육감 선거와 연결되어 있다.

다른 지역은 이미 진보교육감을 통해 학교가 조금씩 바뀌어 왔다. 무상급식은 아이들이 밥 한 끼를 눈치보지 않게 했고, 교육복지 확대는 학부모 부담을 줄였다. 친환경 급식과 돌봄 확대, 교육비 지원은 학교가 아이들의 생활을 더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했다.

9시 등교는 아침부터 지친 몸으로 학교에 가던 아이들이 생활을 바꿨다. 학생인권 강화와 체벌 금지는 아이들을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학교 구성원으로 바라보게 했다. 학교에서 존중받아본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수업도 예전처럼 듣고 외우는 방식에만 머물지 않았다. 친구들과 토론하고 함께 문제를 풀며,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수업을 넓혀왔다. 학교는 정답만 외우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생각하고 배워가는 곳으로 조금씩 바뀌어 왔다.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아이들을 성적으로만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교 시험을

잘 보는 아이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모든 아이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진보 교육의 중요한 성과였다.

하지만 경북은 아직 첫 진보교육을 시작하지 못했다. 경북의 아이들도 무상급식과 교육복지, 학생인권과 노동인권교육, 아이들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교육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제 경북에서도 경쟁과 성적 중심 교육을 넘어 아이들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교육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이용기 민주진보 경북교육감 후보는 경북 첫 진보교육을 시작하기 위해 나섰다. 청소년 무상교통, 등·하교 버스 지원, 체험학습비와 수학여행비 지원, 9시 수업 시작,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은 교육비 부담과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함께 살피는 공약이다. 생활비 부담도 만만치 않은 현실에서 공교육이 아이들의 삶을 더 책임지는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단순히 한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경북 교육을 지금처럼 경쟁과 성적 중심에 둘 것인지, 아니면 아이들의 삶과 공교육의 책임을 중심에 놓는 교육으로 바꿀 것인지 선택하는 선거다. 진보교육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 변화를 만들어왔고, 이제 그 변화가 경북에서도 시작되어야 한다.

이용기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한 분 한 분이 이용기가 되어 가족, 친지, 동료들에게 경북 첫 민주진보교육의 진심을 전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합원 한 사람의 말과 한 표가 아이들의 학교를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

5월 29일, 30일의 사전투표와 6월 3일에 시행되는 투표가 중요하다.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경북 첫 진보교육을 여는 힘이 된다. 가족과 주변 동료들에게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을 알려주시고, 공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동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드는 길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북교육 대전환 용기있는 변화

건강한 성장학교! 모두가 행복한 경북교육!



민주진보 교육감 **이용기**



민주진보교육감 이용기

경북교육의 변화



“선생님의 한숨이 벗어나,
우리 아이들의 웃음이 번집니다.”

선생님의 미소가 멈추지 않는
경북 교육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1		<p>선생님의 든든한 방패가 되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형 민원통합시스템으로 민원 책임은 경북교육청이 ✔ 차등성과급 폐지 및 수당체제 합리화 ✔ 체험학습 안전점검요원 배치 및 인솔교사 면책 보장을 위한 법 개정
2		<p>잃어버린 '교실'을 선생님께 돌려드립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업무 정상화(교실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법 개정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혁신으로 학교지원업무 강화 •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지원청이 전담(교사는 발걸과 요청) ✔ 초1-2 학급당 15명 상한제 단계적 실시 ✔ 유치원 학급당 원아수 하향 조정
3		<p>가르치는 자긍심을 지켜드리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식학급 폐지 ✔ 겸임·상치교사 해소